

# 공연계가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 LG아트센터의 내한 공연, 해외 투어 대응 사례



LG아트센터 공연기획팀장 신민경

\* 본 콘텐츠는 2026년 4월 9일 추출된 데이터로, 2024~2026년 1분기 내한 공연 특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매일 단위로 예매·취소값이 발생하는 공연예매 데이터 특성으로 인해, 데이터 추출 일자가 다를 경우, 결괏값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중동 전쟁이 발발한 이후 국제 유가, 해상 운송비, 항공료, 보험료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공연예술 산업은 이러한 충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분야다. 공연은 무대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의 이동, 국제 물류, 외화 계약, 보험, 비자, 기술 인력 등 복합적인 비용 구조 위에서 성립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변화는 예산의 불확실성이 눈에 띄게 커졌다는 점이다. 같은 해외 공연이라도 어떤 비용이 가장 크게 오르는지는 장르와 포맷에 따라 다르다. 대형 오케스트라나 대중음악 콘서트는 항공료와 체재비 비중이 크고, 대형 세트가 필요한 연극이나 무용은 해상과 항공 화물 운송비의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한다. 뮤지컬이나 라이선스 공연은 여기에 로열티, 개런티, 선급금 등 외화 지급 항목이 많기 때문에 환율 상승의 영향을 더욱 직접적으로 받는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전체 공연시장은 4,095건의 공연, 2만 9,501회의 공연회차, 약 472만 매의 티켓판매, 약 3,249억 원의 티켓판매액을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냈다.<sup>1</sup> 그러나 같은 분기 공연 특성별 지표를 보면 내한 공연은 177건, 223회, 22만 7,590매, 208억 원으로 전년 (2024년 1분기 기준) 동기 대비 공연건수는 -15.3%, 공연회차는 -46.8%, 티켓판매수는 -35.4%, 티켓판매액은 -34.2%를 기록했다. 전체 시장은 성장했지만, 내한 공연은 오히려 위축된 것이다.

<sup>1</sup> 2025년 1분기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 기준.

## 2024~2026년 1분기 장르별 내한 공연 티켓판매데이터

구분	공연건수(건)			공연회차(회)			티켓판매수(매)			티켓판매액(천 원)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
전체	209	177	199	419	223	379	352,303	227,590	415,297	31,596,616	20,783,525	49,131,202
연극	4	1	2	11	5	96	1,848	232	182,316	17,146	8,091	26,539,316
뮤지컬	2	1	2	149	18	52	96,890	6,988	27,935	8,313,175	659,153	3,414,771
서양음악	133	118	106	142	117	109	111,113	82,305	89,328	4,905,315	3,815,853	6,668,662
대중음악	54	49	79	64	64	99	63,710	130,397	106,177	7,529,560	15,914,922	11,775,778
무용	5	2	7	5	4	19	1,490	2,800	7,507	39,359	69,703	620,262
대중무용	1	-	-	1	-	-	60	-	-	1,500	-	-
서커스·마술	1	2	-	33	8	-	76,087	4,140	-	10,765,257	275,129	-
복합	9	4	3	14	7	4	1,105	728	2,034	25,302	40,672	112,412

이를, 2026년 1분기 KOPIS 집계와 비교하면, 내한 공연에서 다시 다른 방향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공연건수·공연회차·티켓판매수·티켓판매액 기준으로, 2024년 1분기 209건, 419회, 35만 2,303매, 약 316억 원, 2025년 1분기 177건, 223회, 22만 7,590매, 약 208억 원을 거친 뒤, 2026년 1분기 공연건수는 199건으로 2024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공연회차는 379회, 티켓판매수는 41만 5,297매, 티켓판매액은 약 491억 원으로 크게 뛰었다.

이는 내한 공연시장이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일부 흥행 가능성이 높은 작품에 회차와 객석, 마케팅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적은 수의 작품이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흐름은 2025년 1분기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서양음악(클래식) 장르에서 내한 공연은 티켓판매수 비중이 17.4%에 그쳤지만, 티켓판매액 비중은 31.5%를 차지했다. 공급 비중보다 매출 비중이 훨씬 높다는 뜻이다. 이는 내한 공연시장이 양적으로 확장되는 구조라기보다, 단가가 높고 객석 규모가 큰 소수의 프로젝트에 수익이 집중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25년 1분기 서양음악(클래식) 전체 및 내한 공연 티켓판매데이터

2025년 1분기	공연건수(건)		공연회차(회)		티켓판매수(매)		티켓판매액(천 원)	
서양음악 (전체)	1,396	-	1,744	-	469,892	-	11,787,778	-
서양음악 (내한)	118	8.45%	122	7.00%	81,523	17.35%	3,715,745	3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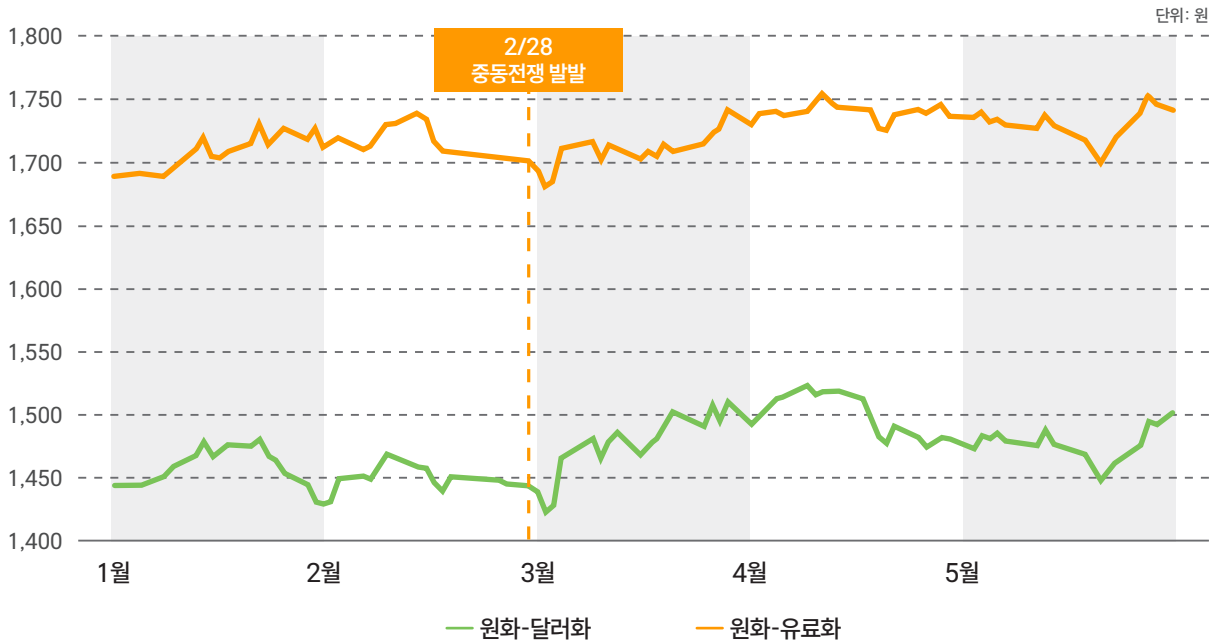
전쟁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이 구조는 특히 취약하다. 공연 수가 많을 때보다, 몇 편의 프로젝트에 수익이 집중될 때 항공료, 화물 운송비, 보험료, 환율 변동이 개별 작품 손익에 미치는 충격은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

LG아트센터 역시 올해 예정된 공연 전반을 대상으로 전쟁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리스크를 재점검했다. 첫 번째는 예정된 일정 안에 항공과 화물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환율과 유가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어느 수준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였다. 상반기 공연 가운데 <윈튼 마살리스 & 재즈 앳 링컨센터 오케스트라>와 크리스탈 파이트의 <어셈블리 홀>은 상대적으로 분쟁 지역의 영향을 덜 받는 편이었지만, 유럽에서 해상 운송으로 세트를 들여오는 알렉산더 에크만의 <한여름 밤의 꿈>은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중동 경유 리스크를 피하는 희망봉 우회 노선을 선택했고, 공연 3주 전 한국에 조기 도착하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운송 비용은 다소 증가했지만, 일정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반기에 계획한 <피아노 피아노>, <로스코> 역시 향후 정세를 모니터링하면서 운송 노선, 견적, 일정의 최적 조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 공연 기획자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연의 성사 가능성을 끝까지 확보하는 일이다. 현장에서는 대체로 다음 단계의 판단이 이루어진다. 첫째, 공연 일정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물류 경로와 운송 방식을 조정한다. 둘째, 지역 공연장이나 아시아 타 도시 투어와 연계한 경우라면, 항공, 화물, 현지 운송, 기술 비용을 분산한다. 셋째, 그럼에도 손실이 클 경우에는 공연 기간과 횟수, 투어 인원, 장비 규모를 재조정한다. 공연 취소는 가장 마지막에 검토해야 할 선택지다. 취소는 단기적으로 손실을 줄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객 신뢰, 예술가와의 관계, 극장의 브랜드 가치에 더 큰 손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 2026년 원화 환율 변동 추이(달러·유로)



\*데이터 출처: 하나은행 고시환율(검색일: 2026.05.11.)

환율 리스크는 운송비 상승만큼이나 치명적이다. 해외 초청 공연의 경우 공연료, 일비, 로열티, 비자, 일부 세금과 현지 지급 비용이 대부분 달러나 유로 기준으로 계약되기 때문에, 예산 수립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의 환율 차이는 곧바로 손익에 반영된다. 특히 공연 사업은 통상 1년 이상 앞서 예산을 세우고 계약을 추진하므로, 짧은 기간의 급격한 환율 변동에도 취약하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작품별 외화 사용 항목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약 단계에서 환율 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지출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항공과 화물의 경우 조기 예약과 함께 환불 조건까지 병행 검토하는 방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공연 기획은 더 이상 예술적 판단만의 영역이 아니다. 환율, 물류, 재무 운영을 함께 읽는 종합적 의사결정의 영역이 되고 있다.

보험의 한계 역시 분명하다. 일반적인 책임보험이나 화물보험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고환율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충분히 흡수하기는 어렵다. 그나마 해외에는 공연 취소 보험 등 일부 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이 존재하지만, 최근과 같이 전쟁과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된 시기에는 전쟁, 테러, 정치적 상황과 관련한 면책이 적용되거나 보험료 자체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런 국면에서는 전쟁, 테러, 정치적 리스크 면책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며, 해상 운송에서는 고위험 해역 지정 확대에 따라 보험료가 급격히 뛰기도 한다. 공연 산업에도 보다 세분화된 민간 보험 상품이 필요하고, 나아가 재난 상황에서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적, 제도적 보완 장치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공연장 간 협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LG아트센터는 지역 연계 투어를 활발하게 조직하는 편인데, 서울 이외 지방 공연장으로 이어지는 작품의 경우, 개별 공연장이 각자 리스크를 감당하는 방식보다 공동 대응 체계를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크다. 하나의 내한 공연을 서울 공연으로만 끝내지

않고 지역 공연장과 연결하면, 항공 및 물류비용뿐 아니라 프리-프로덕션 비용도 여러 기관이 함께 분담할 수 있다. 공동 운송, 항공 예약, 내한 공연 기술감독의 공유, 일정 예비비의 공동 확보 같은 방식은 위기 상황에서 특히 효과적이다. 더불어 해외 공연을 기획하는 아시아와 유럽의 다른 공연장, 제작사, 해외 페스티벌과의 정보 교류도 중요하다. 어느 항공사가 환불 조건을 유연하게 운영하는지, 어떤 해상 노선이 상대적으로 안전한지, 어느 시점부터 전쟁 위험 보험료가 붙는지와 같은 정보는 때로 계약서보다 먼저 현장을 지켜주는 실질적 지식이 된다.

## 국내 제작 공연의 해외 투어 공연의 경우

LG아트센터 제작연극 <벚꽃동산>의 해외 투어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외국의 공연장이나 축제에 초청되어 단순히 작품을 한 번 올리는 일이 아니라, 환율과 항공료, 화물, 보험, 현지 인력과의 협업, 일정 변경 가능성을 모두 안고 국경을 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올해 3월 애들레이드 공연, 마지막으로 오는 9월 뉴욕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민감한 변수는, ‘예술적 완성도를 유지하면서 어떤 비용은 사전에 확정하고, 어떤 비용은 끝까지 유연하게 관리할 것인가’였다. 해외 투어는 초청하는 프리젠티로부터 받는 공연료 등 수익 구조가 미리 정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어 작품일수록 운송 일정의 선제적 조정, 보험 검토, 현지 파트너와의 비용 분담 원칙을 더 이른 단계에서 정리해야 한다. 물론 교환율 국면에서는 계약 당시보다 달러 기준 공연료를 원화로 환산했을 때 일부 환차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비용 구조의 불확실성을 상쇄할 정도의 안전장치가 되기는 어렵다.

전쟁이 초래한 교환율 고유가 시대에 공연예술의 국제 교류는 분명 더 비싸고, 더 어렵고, 더 불확실해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연예술의 양방향 교류를 멈출 수는 없다. 공연예술은 당장의 경제 위기를 종식시키는 산업은 아닐지라도, 위기 속에서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가 만나는 장을 열어 인간다움을 재확인시키는 강력한 공공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의와 의미만으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공연 프로듀서는 예술적 가치를 판단하는 동시에 물류, 재무, 보험, 리스크 관리 역량까지 함께 갖추어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다른 산업군이 재난 상황에서 금융 및 물류 지원을 받는 것처럼, 이제는 공연 산업 역시 최소한의 공적, 제도적 안전판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축되어 공연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어떤 위기 속에서도 공연이 계속될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는 더 정교하고 회복 탄력성 높은 대응 체계일 것이다.

### 신민경(LG아트센터 공연기획팀장)

동시대에 놓쳐서는 안 될 공연이라는 기치 아래, 기획 공연 프로그래밍과 대관 공연 운영 전반을 맡고 있다. LG아트센터가 직접 제작한 연극 <벚꽃동산>과 <바나삼촌>의 프로듀서이며, 글로벌 해외 투어를 이끌어 작품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국경을 넘는 글로벌 협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고, 이전에는 국립극장에서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웅녀>, <트로이의 여인들>, <패왕별희> 등의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작품 제작과 해외 투어를 추진했다.